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 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이 있기는 했지만 그 보다는 생존 자체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는 그야말로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식량과 물을 얻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곳을 정복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한 두 번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모두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들의 땅을 분배할 때까지 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은 힘이 세고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지만 어찌 보면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필요한 무기일까요? 아니면 강력한 군사와 고대 전쟁에서 필수품 중에 하나였던 많은 말들이었을까요? 지금 이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바로에게 보내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 두심으로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만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먼저는 '누구를 믿는가' 즉 믿음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에는 수 많은 이방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이고 또 다른 한 명은 갈렙입니다.

먼저 11장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지금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과 한창 전쟁을 하며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민족들은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매우 많은 군대였고 말과 병거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이 될만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이제까지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전쟁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합을 하여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든지 수 많은 병거와 말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나오든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다고 하면 이 전쟁은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후반부에 이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 그들이 남기고 가는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더욱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 전쟁에서 아무 쓸모 없는 말들이 되게 하고 남아있는 병거는 모두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 이겼습니다. 눈 앞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이 남기고 간 말들과 병거들도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갖고 싶은 말과 병거였을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좋은 악기를 갖고 싶어하고 요리를 하는 요리사는 좋은 칼을 갖고 싶어하듯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은 눈 앞에 놓여진 주인 잃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싶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갈렙의 믿음으로 14장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온전히 좇았다"는 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남쪽과 북쪽의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복한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들이 제비 뽑은 땅들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예전에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에게 이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였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가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날이 실제로 찾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데스에서 올라 갔을 때나 4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이나 갈렙이 요

구하는 헤브론에는 강한 민족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이미 정복한 땅을 구하거나 아니면 정복하기에 조금 쉬운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에게는 그 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강한 군대가 있는지 그들이 어떤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자신이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눈 앞에 있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 왔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단지 관념적으로 동의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 왔을 때 누구를 찾는가 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 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당장 내 눈 앞의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 왔을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좇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교회를 몇 년씩 다니고 있지만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좇는 복 있

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